

14학년도 9월 B형
(정점을 향해.)

발문을 통한 지문구조의 예측은 어려웠을 것!

- 그래도 한 사람이 있다면 커피 한 잔 사주지.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 B형 <인문>

[1문단] 고대 중국에서 '대학'은 교육 기관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 '대학'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전하고 있는 책이 「대학」이다. 유학자들은 「대학」의 '명명덕(明明德)과 '친민(親民)'을 공자의 말로 여기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경문 해석의 차이는 글자와 문장의 정확성을 따지는 (훈고(訓詁)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석자의 사상적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2문단] 주희와 정약용은 '@명명덕'과 '친민'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 주희는 '명덕(明德)'을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해석한다. 인간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명덕을 지니고 있어서인데 기질에 가려 명덕이 발휘되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도덕 실천을 위해서는 명덕이 발휘되도록 기질을 교정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반면, 정약용은 명덕을 '효(孝)', '제(悌)', '자(慈)'의 덕목으로 해석한다. 명덕은 마음이 지닌 능력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 덕목이다. 어떤 사람을 효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효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명명덕'은 구체적으로 효, 제, 자를 실천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3문단] 유학자들은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것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뿐 아니라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끈다. 이끈다는 생각을 원칙으로 삼는다.★★ 주희도 자신이 명덕을 밝힌 후에는 백성들도 그들이 지닌 명덕을 밝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백성을 가르쳐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민(新民)이다. 주희는 「대학」을 새로 편찬하면서 고본(古本) 「대학」의 '친민'을 '신민'으로 고쳤다. '친(親)' 보다는 '신(新)'이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더 잘 표현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반면, 정약용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정약용은 '친민'을 백성들이 효, 제, 자의 덕목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자식이 아버이를 사랑하여 효도하고 아버이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애의 덕행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 친민이다. 백성들이 이전과 달리 효, 제, 자를 실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뜻은 있지만 본래 글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4문단] 주희와 정약용 모두 개인의 인격 완성과 인륜 공동체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그 이상의 실현 방법에 있어서는 생각이 달랐다. 주희는 개인이 마음을 어떻게 수양하여 도덕적 완성에 이를 것인가에 관심을 둔 반면, 정약용은 당대의 학자들이 마음 수양에 치우쳐 개인과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덕행의 실천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바로바로 잡아야 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명명덕과 '친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합니다!
==> " '문단별 구분'이 이루어질 것이다! "

해석에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 (1)과 (2) 그런데 이 때, '~이기도 하지만'이라는 표현을 통해 해당 지문은 이유 (2)에 더욱 주목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합니다!
즉, '차이점'을 중심으로 글이 전개될 것이라는 점!

대놓고 지문구조가 '대조관계'를 이룰 것이라고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면'이라는 접속사는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각 문단을 크게 2부류로 분류하면서 글을 읽어 나갑시다!
단, '차이점'에만 주목하지는 마시길!(★)
다음으로 2문단에서는 '명명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3문단에서는 '친민'에 대해 다를 것이라고 예측해 나갑시다!

여기서 우리는 주희와 정약용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희와 정약용 모두 유학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 생각을 원칙으로' 삼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면'을 중심으로 해서 지문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 둘 사이의 차이점에 주목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둘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에 대해서도 의식적으로 인식하며 글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3문단은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 같이 '친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2문단과 3문단에서 각각 '명명덕'과 '친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유형화'가 이루어 졌음을 확인합니다!

여기서는 대놓고 주희와 정약용 사이의 공통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간파하고 있었던 부분이므로 확신을 갖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 6월 모의평가의 경우 '본질주의'와 '반본질주의'의 공통점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억할 것!
이후 구조는 역시나 '반면'을 중심으로 하여 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7.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학'은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공자가 건립한** 교육 기관이다.

==> 헛소리! 더 설명 안함!

② 주희는 사람들이 명덕을 교정하지 못하여 잘못된 행위를 한다고 보았다.

==> '명덕을 교정하지 못하여'가 아니라 기질이 명덕을 가려서라고 2문단에서 언급되었음!

③ 주희와 정약용의 경전 해석에서 (**글자의 훈고**)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 분명 **애매했을 수 있는 선지임!** 일단 넘어가!!

④ 주희와 정약용 모두 도덕 실천이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정답!** 4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그대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눈에 쉽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6월 모의평가의 인문지문의 경우 우리에게 둘 사이의 '공통점'을 눈에 잘 보이게끔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항상 유의합시다!!

⑤ 정약용의 「대학」 해석에는 마음 수양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관심이 반영되었다.

==> 완전 개소리! 더 이상 설명 안함!!

그렇다면, 이제 다시 ③번 선지를 두고 얘기를 나눠봅시다.

'글자의 훈고'가 언급된 부분은 1문단입니다. 훈고란 "글자와 문장의 정확성을 따지는 것"이라고 제시되어 있죠. 이제 3문단으로 가 봅시다. 3문단에서 주희는 '친민'을 '신민'으로 고쳤는데 그 이유는 "친(親) 보다는 신(新)이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더 잘 표현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취지"라는 단어는 '글자의 정확성'과 대응될 수 있으므로 **주희는 글자의 훈고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정약용의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3문단에서 정약용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치는 게 옳지 않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백성들이 이전과 달리 ~ 새롭다는 뜻은 있지만 본래 글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심층적으로 해석해보자면 정약용은 '친민'의 취지가 "신민"보다는 본래 글자인 "신민"에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글자의 훈고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③은 부적절합니다.

어때요. 길죠. 이 선지 하나를 설명하는 게 다른 모든 선지를 설명하는 것보다 길입니다.

즉, 시험장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은 역할을 하기에 좋다는 것이죠. 따라서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넘어가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봅시다.

18.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의 해석은 일치한다.

==> 당연히 헛소리! 설명 안 함! (귀찮아서 안 하는 거 아님!!)

② 주희와 정약용 모두 ㉠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를 강조하였다.

==> 그냥 애매했을 거야.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지문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넘.어.가.

③ 주희는 ㉠을 ‘효’, ‘제’, ‘자’라는 구체적 덕목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았다.

==> 주희가 아니라 정약용이지. 헛소리!

④ ㉡에는 백성 또한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주희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 “주희는 백성을 가르쳐서 그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은 적절합니다. 여기서 ‘새롭게’의 의미는 ‘자신이 명덕을 밝힌 후 백성들도 그들이 지닌 명덕을 밝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⑤ 정약용은 ㉡가 고본 「대학」의 ‘친민’의 본래 의미를 잘 나타내었다고 보았다.

==> No, No, No!!! 개소리!! 안 함!!

19. 윗글과 <보기>를 근거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정약용, 왕양명 모두 '친민'을 사용 => [공통점]

<보 기>

왕양명은 당시에 통용되던 「대학」의 '신민'을 고본 「대학」에 따라 '친민'으로 고쳤다. 그는 백성이 가르쳐야 할 대상인 동시에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가르침에 치중한 '신'보다는 '친'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약용은 왕양명이 '명덕'을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해석한 점을 지적하면서, 왕양명이 '명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친민' 또한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왕양명은 '명덕'을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보았으므로 '명덕'에 관해서는 주희와 공통된 관점을 가짐. => 정약용과는 '차이점'을 가짐!

① 왕양명과 정약용은 '명덕'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였다.

=> 헛소리!

② 정약용은 왕양명의 '명덕' 해석이 주희와 다르다고 보았다.

==> "같다" 보았으므로 지적함. 헛소리!

③ 왕양명의 '친민' 해석은 주희가 아닌 정약용의 해석과 일치한다.

==> 정약용은 왕양명이 "명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친민" 또한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으므로 완전 미친 소리!

④ 왕양명과 정약용은 고본 「대학」의 '친민'을 수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둘 다 수정 안했으니까 '친민'개념을 썼지. 헛소리!

⑤ 왕양명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친 주희의 해석이 백성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한정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 <보기>에 그대로 있음. (정답)

==> "왜 3점인지 이해가 안 됨!"이라는 결론이 나와야 함!

20번은 안 합니다!

다른 "세기"도 나오지 않을까?
=>즉, '시간의 흐름'이 있지 않을까?!

2014학년도 2회 모의평가 국어 B형 <예설>

[1문단] 20세기 미술의 특징은 무한한 다원성에 있다. 어떤 내용을 어떤 재료와 어떤 형식으로 작품화하건 미술적 창조로 인정되고, 심지어 창작 행위가 가해지지 않은 것도 '작품'의 자격을 얻을 수 있어서, '미술'과 '미술 아닌 것'을 객관적으로 구분해 주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단토의 '미술 종말론'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미학 이론 중 하나이다. 단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과는 달리 미술의 '종말'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미술 작품이 될 수 있게 된 개방적이고 생산적인 상황을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다원성은 (전적으로 새로운 상황일까, 아니면 이전부터 이어져 온 하나의 흐름에 속할까?) => (지문 구조 예측할 수 있는 단서!)

[2문단] 작품의 형식과 내용이 전적으로 예술가의 주체적 선택에 달려있다는 관점에서만 보면, (20세기 미술의 양상은 아주 낮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르네상스 때 시작된 화가의 서명은 작품이 외부의 주문에 따라 제작되더라도 그것의 정신적 저작권만큼은 예술가에게 있음을 알리는 행위였다. 이는 창조의 자유가 예술의 필수 조건이 되는 시대를 앞당겼다. 즉 미켈란젤로가 예수를 건장한 이탈리아 남성의 모습으로 그렸던 사례에서 보듯, (르네상스 화가들은 주문된 내용도 오직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미지화)했다.

[3문단] 형식의 이러한 자율화는 내용의 자기 중심화로 이어졌다. 17세기의 네덜란드 화가들은 신이나 성인(聖人)을 그리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 친근한 일상을 집중적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19세기 낭만주의에 와서는 내면의 무한한 표출이 예술의 생명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20세기 미술은 예술적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휘라는 일관된 흐름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4문단] 그러나 단토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과는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20세기만의 질적 차별성)이다. (이전 시대까지는 '미술'과 '미술 아닌 것'의 구분은 '무엇을 그리는가?' 또는 '어떻게 그리는가'의 문제, 곧 내용·형식·재료처럼 지각 가능한 '전시적 요소'에 의존하여 가능했다.) 반면, 20세기에는 빈 캔버스, 자연물, 기성품 등도 '작품'으로 인정되는 데에서 보듯, 전시적 요소로는 더 이상 그러한 구분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제 그러한 구분은 대상이 어떤 것이든 그것에 미술 작품의 자격을 부여하는 지적인 행위, 곧 작품 밖의 '비전시적 요소'에 의존할 따름이다. 현대 미술이 미술의 개념 자체를 묻는 일종의 철학이 되고, 작품의 생산과 감상을 매개하는 이론적 행위로서 비평의 중요성이 부각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 "질문"이 존재하므로 그에 대한 "답"도 존재할 것이다.

2) 그 답은 첫째, "전적으로 새로운 상황" 혹은 둘째, "이전부터 이어져 온 하나의 흐름"일 것이므로 이 두 답을 기준으로 "문단별 구분"이 이루어질 것이다.

=>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대조"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차이점을 가질 것이고, 찾을 수 있다면 공통점을 찾는 것이 좋다!

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답1. "이전부터 이어져 온 흐름"

VS

대답2. "전적으로 새로운 상황"

19세기까지!

단토가 주목하는 "질적 차별성"
: 20세기에는 전시적 요소로는 더 이상 그러한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점.

21.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서명의 시작은 주문에 따른 제작에서도 예술가의 주체성을 표출한 사건이었다.

==> 눈이 2문단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와 동시에 2문단의 시작이 “작품의 형식과 ~ 예술가의 주체적 선택에 달려있다는 관점”으로 갔다면 바로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음! (정답)

그 다음 넘어가야지!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이 넘어가야지! 실전이라면 넘어가야지! 넘어가야지!!!

② 예술가의 자율적인 이미지 창출은 르네상스 이전부터 보편적이었다.

==> 화가의 서명(예술가의 주체적 선택)은 “르네상스”부터 시작했으므로 ‘이전부터 보편적이었다’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③ 형식의 자율화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로부터 비롯되었다.

==> No, No, No! 분명히 3문단의 첫 번째 줄에서 “형식의 이러한 자율화” 이라고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이전 (르네상스)부터 형식의 자율화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음! ==> “글을 얼마나 정확히 읽는지” **습관의 문제임!!**

④ 현대 미술에서는 내용과 형식이 작품의 자격을 결정한다.

==> ‘내용과 형식’은 “전시적 요소”입니다. 그런데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대 미술에 미술 작품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지적인 행위, 곧 ‘비전시적 요소’라고 4문단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으므로 **부적절!**

⑤ 현대 미술에서는 비평이 전시적 요소를 결정한다.

==> 우선 현대 미술과 “전시적 요소”를 연관 지은 것부터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어야 하고, ‘비평’이 중요해진 것은 맞지만 “작품의 생산과 감상을 매개하는 이론적 행위”이지 무언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문에 드러나 있지는 않으므로 **부적절**합니다. 더 중요한 건 실전이라면 너는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안 돼! ㅎㅎ

22. ㉠에 따라 ‘20세기 미술’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거에 비해 예술가의 자율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표출된다.

==> ‘명확히 맞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을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넘.어.가.**

② 자연 그대로의 사물을 전시하는 것도 작품 창작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4문단에 ‘자연물’이라는 표현이 있지. **적절함.**

③ 미술을 정의하는 기준이 해체되어 예술 작품 생산이 정체 상태에 이르렀다.

==> 완전 헛소리!!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문단에서 이미 “개방적이고 생산적인 상황을 뜻한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으므로 **부적절**합니다. (정답)

④ 미술사적 관점에서 볼 때 과거와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본질적이다.

==> “전적으로 새로운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적절하지.

⑤ 과거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미술적 창조로 인정될 수 있다.

==> (좋은 선지!) “단토의 미술 종말론”의 “종말”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미술 작품이 될 수 있게 된 개방적이고 생산적인 상황”을 뜻하므로 더욱 “개방적”입니다. 따라서 전시적 요소에 의존하여 작품에 미술의 자격을 부여했던 20세기 이전의 상황보다 더욱 넓은 범위로서 작품에 미술의 자격을 부여할 있으므로 “과거의 것”도 당연히 미술적 창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제자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혼동을 주고자 했던 부분은 학생들이 해당 지문을 읽었을 때 “단토의 미술 종말론”을 기준으로 ‘대조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글을 읽었을 것이므로 둘 사이의 “차이”만을 신경 쓰고 읽을 것이라는 예상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⑤번 선지는 여러분의 눈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실전이라면 ⑥번까지 눈이 내려왔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 이상하게 나는 25번의 ④번이랑 유사한 뉘앙스가 느껴지네! 같은 생각이 든 학생이 있다면 공유해 봅시다!

23.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3점]

① 뒤샹의 <샘>은 소변기에 서명을 하여 전시함으로써 일상품도 이론적 해석에 따라 미술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작품이다.

==> (정답) 기성품이잖아. 4문단을 보시오!

* 더 이상 설명 안합니다.
왜 3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 다음 지문으로 넘어갑시다!

#26과 #27의 발문을 통해 지문구조를 예측한 사람이 있다면 너는 짱짱맨!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 B형 <사회>

[1문단] A회사의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 갑을 비롯한 수만 명의 가입자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누군가 A회사의 시스템 관리가 허술한 것을 알고 링크 파일을 만들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가입자들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은 A회사에 사이트 운영의 중지와 배상을 요구하였지만, A회사는 거부하였다. 갑은 소송을 검토하였는데, 받게 될 배상액에 비해 들어갈 비용이 적지 않다는 생각에 망설였다. 갑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소송할 사람들을 모았고 마침내 100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동참하게 되었다. 갑은 이들과 함께 ㉠공통 소송을 하여 A회사에 사이트 운영의 중지와 피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 “사례”의 제시.

[2문단] 공통 소송은 소송 당사자의 수가 여럿이 되는 소송을 말한다. 이는 저마다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송들을 하나의 절차에서 한꺼번에 심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으로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일괄 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한꺼번에 소송을 진행하기에 번거롭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개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가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갑과 을 당사자로 삼아 그에게 모두의 소송을 맡기는 것이다.

[3문단] 위 사건에서 수만 명의 가입자가 손해를 입었지만, 배상받을 금액이 적은 탓에 대부분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전체 피해 규모가 엄청난 데 비하면, 승소해서 받게 될 배상금의 총액은 매우 적을 것이다. 이래서는 피해 구제도 미흡하고, 기업에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는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다.

[4문단] 집단 소송은 피해자들의 일부가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대표 당사자가 되어, 기업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만일 갑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공동 소송을 하여 승소한다면 이들만 배상을 받게 된다. 반면에 (집단 소송에서 대표 당사자가 수행하여 이루어진 판결은 원칙적으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대표 당사자는 초기에 고액의 소송비용을 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어 소송의 개시가 쉽지만은 않다.)

[5문단] 단체 소송은 법률이 정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침해 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위의 사례에서도 IT 관련 협회와 같은 전문 단체가 소송을 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 피해자들을 위한 손해 배상 청구는 하지 못한다.)

[6문단] 최근에 ㉡우리나라도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을 제한적으로 도입하였다. (먼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기업이 회계내용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 투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에 (단체 소송도 도입되었는데, 소비자 분쟁과 개인 정보 피해에 한하여 소비자 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되었다.

#26과 #27의 발문을 통해 지문으로 눈이 한 번 갔었다면 ㉠과 ㉡을 통해 ‘소송’이 “공통 소송”, “집단 소송”, “단체 소송”으로 쪼개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

=> “지문의 구조가 ”소송“이라는 大 주제를 기준으로 각각의 소송들이 ‘문단별 구분’이 이루어지겠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너는 짱짱맨!

“하지만”이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장점’과 ‘단점’이 드러남. 그리고 공동 소송의 “단점”을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이 “개선”함을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올해 6월 B형 <인문> 지문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런 생각 든 사람 있나?! 있다면 사.랑.한.다. (ㅎㅎ)

“장점”과 “단점” 또 등장했지! 개선하더라도 여전히 “단점”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함!

“마찬가지”

24.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되는 해결 방안과 한계를 설명하였다.

==> 그냥 지문 구조에서 그대로 떨어집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한 마디만 노파심에서 하자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이므로 해결 방안과 한계보다 “구체적인 사례”가 먼저 등장해야 한다는 것만 유의합시다!

② 대립되는 원칙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 공동 소송, 집단 소송, 단체 소송이 서로 “대립”되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공동 소송을 나머지 둘이 “개선”했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합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③ 여러 유사한 개념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하나의 이론 아래 통합하였다.

==> 그냥 미.친.소.리!

④ 이론적으로 설정한 가설에 대하여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논증하였다.

==> ①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례”를 먼저 들었으므로 “이론적으로 설정한 가설에 대하여”라는 표현은 **부적절!**

⑤ 문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일관된 해결책을 정립하였다.

==> 1) “근본 원인”이라는 표현 애매함. 2) “일관된 해결책”은 확실히 틀림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어쨌든 3개임! 따라서 **부적절**

2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선정 당사자 제도는 소송 당사자들이 한꺼번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 “선정 당사자 제도”는 “공동 소송”과 관련된 표현이므로 눈은 2문단!

2문단에 “당사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한꺼번에 소송을 진행하기에 번거롭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선정 당사자” 제도를 활용한다고 드러나 있음. 따라서 **적절함**

② 공동 소송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성격을 지닌다.

==> 미쳤냐! “공익적 성격”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소송은 지문에 근거했을 때, “단체 소송”밖에 없음! 따라서 **(정답)**

③ 단체 소송에서 기업이 일으키는 피해를 중지시키려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은 법률이 정한다.

==> “단체 소송”이니 5문단 보세요. 그대로 있습니다. Pass!

④ 다수의 소액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도 피해자들은 공동 소송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 의무적으로 “공동 소송”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집단 소송”도 “단체 소송”도 마찬가지.

단지 피해 구제를 함에 있어서 개별적인 소송보다는 지문에서 언급한 3개의 소송이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적절**합니다.

⑤ 일부의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하면 그런 소송이 진행되었는지 몰랐던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다.

==> “집단 소송”이므로 눈은 4문단으로 가야하고, “판결은 원칙적으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드러남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26. ㉠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인 정보의 침해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 ② 개인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 ③ 개인 정보의 침해가 일어난 데 대한 배상을 받고자 한다.
- ④ 개인 정보를 판매한 데 대하여 경각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 미쳤나?! 언제 팔았어? **부적절! (정답)**

- ⑤ 개인 정보의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소송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27. ㉡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 (* 그래도 잘 낸 문제! 차라리 이런 걸 3점 줘야지!)

- ① 포털 사이트의 개인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단체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출제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선지!

==> “아주” “매우” “너무나도” Excellent!한 선지입니다. 왜냐! 여러분의 눈은 바로 6문단으로 갔을 텐데, 6문단에서 “개인 정보 피해에 한하여” 단체 소송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었다고 드러나 있으므로 “오호! 이게 정답!”이라는 패턴으로 틀린 학생들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체 소송의 주체”는 “가입자들”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절**합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선지 구성을 잘했으므로 해당 문항을 틀린 사람들은 이 선지의 “뉘앙스”를 기억합시다!

- ② 기업의 허위 공시 때문에 증권 관련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6문단을 보면, “기업이 회계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죠. 댕쥬!! **(정답)**

③ **증권과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중립적인 단체**를 대표 당사자로 내세워 **집단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아니 왜?! “집단 소송”인데 “중립적인 단체”가 왜 필요해? 됐죠!!

④ (**대기업이 출시한 제품이 지닌 결함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
들이 소를 제기하여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이것도 잘 낸 선지죠. 분명히 6문단에서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은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집단 소송’의 경우, “주식 투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⑤ 소비자들이 기업에 **손해 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전문성 있는 소비자 협회가 대신 소송을 수행 : “단체 소송”**)할 수 있게 되었다.

==> “단체 소송”의 경우 “손해 배상 청구는 하지 못한다”고 5문단에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이 선지도 나름대로 잘 냈다고 생각됩니다. 대개의 경우, 여러분의 “의식의 흐름”은 “손해 배상 청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전문성 있는 소비자 협회가 대신 소송을 수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나름 “심리전”이 있었죠.

사실 27번 문항이 진정으로 훌륭한 이유는 출제자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혼동”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만한 요소란 요소는 전부 다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볼까요?

- 1) “소송의 주체”와 관련지어 선지가 구성됨. ==> ①, ③, ⑤
- 2) “소송을 하는 상황”과 관련 지어 선지가 구성됨. ==> ④, ⑤
- 3) “제한적”이라는 표현을 통해 선지가 구성됨. ==> ②, ④, ⑤

결론 : 아주 Excelent! 했음. & 이러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선지를 구성하는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기!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볼까!

발문을 통한 지문구조의 예측은 불가능했음!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 B형 <과학>

[1문단]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는 외부로부터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 운동을 유지하는데, 이를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한다. 각운동량은 (질량이 m)인 작은 알갱이가 (회전축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속도 v)로 운동하고 있을 때 mvr 로 표현된다. 그런데 회전하는 (물체에 회전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거나(A)) (마찰 또는 공기 저항이 작용(B))하게 되면,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이 변화하여 회전 속도는 (빨라지거나(A)) (느려지게(B)) 된다.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을 돌림힘이라고 한다.

[2문단] 그러면 팽이와 같은 물체의 각운동량은 어떻게 표현할까? 아주 작은 균일한 알갱이들로 팽이가 이루어졌다고 볼 때, 이 알갱이 하나하나를 질량 요소라고 한다. 이 질량 요소 각각의 각운동량의 총합이 팽이 전체의 각운동량에 해당한다. 회전 운동에서 물체의 각운동량은 (각속도) X (회전 관성)으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각속도는 회전 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 당 회전하는 각이다. 질량이 직선 운동에서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듯이, 회전 관성은 회전 운동에서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다. 즉, 회전체의 회전 관성이 클수록 그것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3문단] 회전체의 회전 관성은 회전체를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과 같은데,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은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그러므로 질량이 같은 두 팽이가 있을 때 훅쪽하고 키가 큰 팽이보다 넓적하고 키가 작은 팽이가 회전 관성이 크다.

[4문단] 각운동량 보존의 원리는 스포츠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피겨 선수에게 공중 회전수는 중요한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중회전을 하는 동안 각속도를 크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겨 선수가 공중에서 팔을 몸에 바짝 붙인 상태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피겨 선수의 회전 관성은 몸을 이루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과 같다. 따라서 팔을 몸에 붙이면 팔을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이 회전축에 가까워져서 팔을 폈을 때보다 몸 전체의 (회전 관성이 줄어들게 된다.) 점프 이후에 공중에서 각운동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팔을 붙였을 때가 폈을 때보다 (각속도가 커지는 것)이다. 반대로 착지 직전에는 (각속도를 줄여) 착지 실수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양팔을 한껏 펼쳐 (회전 관성을 크게)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눈에 보이는 명확한 지문구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문이 다루고 있는 영역이 “과학”이므로 여러분들은 ‘비례-반비례’관계에 대해서 예민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문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게 이 지문의 전부입니다.

과학 지문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전제”입니다. 과학 이론과 실체가 정확하더라도 합치되지는 않으므로 등장하게 되는 표현입니다. 익.속.해.지.시.길!

얘기했죠? 과학 지문에서 ‘공식’이 주어지고, 해당 공식이 “더하기/빼기/곱하기/나누기”의 수준이라면 출제자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혼돈”을 주는 무기로 사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주.목.하.시.길!

또! “단위 시간”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100km/h 이거 떠올리면 된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 눈에 보이는 비례-반비례 관계 정리!
- 1) 회전 관성과 물체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는 “반비례”
- 2) 회전 관성과 회전축으로부터 질량 요소들까지의 거리는 “비례”
- 3) 회전 관성과 각속도는 “반비례” (★)
- 2)와 3)을 통해
==> 각속도와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는 “반비례” (★)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주세요!

28. 잇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어★렵★다★ 틀려도 돼!)

①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회전 관성이 클수록 회전시키기 쉽다.

==> ‘회전 관성이 클수록’ 물체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우므로 회전시키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적절. 하지만 지문 내의 문장이 다소 애매하게 표현된 느낌이 적잖게 있어서 학생들이 혼돈했을 수 있음. 아무튼 **부적절함!** (모르겠으면 넘어가!)

② 회전하는 팽이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돌림힘의 작용 없이 회전을 멈출 수 있다.

==> “**돌림힘의 작용이 없다면**”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는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 운동을 유지하므로 **부적절!**

③ 지면과의 마찰은 회전하는 팽이의 회전 관성을 작게 만들어 팽이의 각운동량을 줄어든게 한다.

==> (아주 훌륭한 선지)

지문에 근거해 보자. “회전 관성”은 “질량 요소와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딱 여기까지 생각하고 문제를 푼 사람은 쉽게 해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문에서 돌림힘(여기서는 “마찰”이라고 볼 수 있음)이 각운동량을 변화시킨다고 했으므로 여러분들은 각운동량의 한 요소인 “회전 관성” 역시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했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각운동량은 (회전 관성 X 각속도)이므로 “**마찰이 회전 관성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아니면 각속도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따라서 지문의 내용에만 철저히 근거해서 “회전 관성은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와 비례 관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하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이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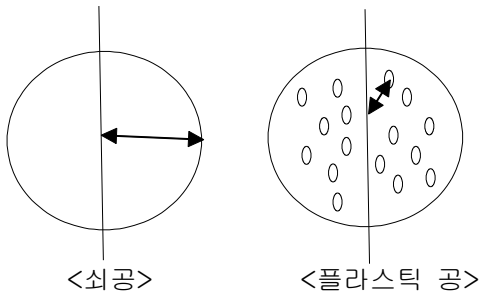
또 하나..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했다면 넘어가라!

④ (크기와 질량이 동일한.) (속이 빈 쇠공과 속이 찬 플라스틱 공)이 자전할 때 회전 관성은 쇠공이 더 크다.

==> “속이 비었다”는 것은 쇠공의 내부에 ‘질량 요소’가 없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속이 찼다”는 것은 플라스틱 공의 내부에는 ‘질량 요소’가 가득하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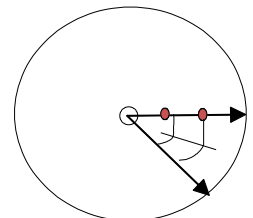
==> 그렇다면 “쇠공의 경우 ‘회전축으로부터 질량 요소까지의 거리’가 플라스틱 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답)

==> (아 왜요?! 이해 안 되는데요?!)



플라스틱 공이 회전축으로부터 질량 요소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잖아! 됐지?!!!

⑤ 회전하는 하나의 시곗바늘 위의 두 점 중 회전축에 가까이 있는 점이 멀리 있는 점보다 각속도가 작다.



==>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그리기 힘들다 π.π)

28번 문항은 정말 훌륭한 문항이었습니다.

정답인 ④번 역시 애매해서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을 답으로 찾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머릿속에서 “그림”이 기반되어야 해결할 만했다는 점은 정말 시험장의 우리로 하여금 난처하게 만들 만한 문항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과연 지금까지의 수능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합한가?’라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지에서 “전향력” 지문을 마주하는 순간 ‘아차!’ 했습니다(지구의 위도를 중심으로 지구를 머릿속에서 그렸어야 했지!). 그렇게 기출 문제에 집착하던 저조차도 안일하게 생각했었던 것이죠.

단순히 문항이 어려워서도 훌륭하지만 수능 평가원에서 우리에게 “사고의 범위”까지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던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올해 6월과 9월 모의평가에서도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도 남김없이 모두 잡아냅니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다이빙 선수가 발판에서 점프하여 공중회전하며 A~E 단계를 거쳐 1.5바퀴 회전하여 입수하고 있다. 여기에서 검은 점은 회전 운동의 회전축을 나타내며 회전 운동은 화살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단, 다이빙 선수가 공중에 머무는 동안은 외부에서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지문의 “피겨 선수”를 떠올리면 되겠죠.

수학에서도 “단,”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국어에서도 “단,”이라는 표현은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각운동량은 보존되어야 합니다.

① A보다 B에서 다이빙 선수의 각운동량이 더 크겠군. (★★)

==> (잘 낸 선지!)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각운동량”은 보존됩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 그래도 출제자의 의도가 반영! 한 번은 고민할 만했던 선지입니다.

② B보다 D에서 다이빙 선수의 질량 요소들의 합은 더 작겠군.

==>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동일한 다이빙 선수가 그 순간 “질량 요소들의 합”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적절합니다. 혹시라도 “그래도 운동하니까 그 순간 살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 죽을래?! ㅋㅋ

③ A~E의 다섯 단계 중 B 단계에서 다이빙 선수는 가장 작은 각속도를 갖겠군.

==>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최소(회전 관성이 최대!)이므로 부적절합니다. (정답)

사실해당 선지는 조금 더 심층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위의 지문의 구조를 찾는 데서도 언급했듯이 “회전 관성”과 “각속도”는 “반비례 관계”였습니다. “각속도”에 대해서 어느 경우에 최대이고, 어느 경우에 최소인지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위 지문에서 “피겨 선수의 공중회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기에서 “회전 관성”과 “각속도”가 반비례함을 확인했으므로 해당 선지가 부적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심층적인 설명은 다음페이지에서 첨부하겠습니다.) => ‘과학 지문에서의 공식’의 역할’

④ C에서 E로 진행함에 따라 다이빙 선수의 팔과 다리가 펼쳐지면서 회전 관성이 작아지겠군.

==> “팔과 다리가 펼쳐진다.”면 회전축으로부터 질량 요소들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되므로 회전 관성은 작아지는 것이 아닌, 점점 커지는 것이 더욱 적절합니다. 따라서 **부적절**한 선지입니다.
(위의 ③번과 동일한 논리가 적용 가능합니다.)

⑤ B 단계부터 같은 자세로 회전 운동을 계속하여 입수한다면 다이빙 선수는 1.5바퀴보다 더 많이 회전하겠군.

지문과의 대응지점

==> “B 단계부터 같은 자세로” 회전 운동을 계속한다면 (피겨 선수가 **공중 회전수를 확보하기 위해 공중회전을 하는 동안 각속도를 크게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각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공중 회전수가 더욱 늘어난다는 의미이죠. 따라서 원래 1.5바퀴를 회전했다면 몇 바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욱 큰 회전수를 갖게 될 것입니다. => 역시 “질량요소와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최소이므로 “회전 관성”이 최대가 되고, 이에 따라 “각속도”는 최소가 되는 원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③번부터 ⑤번까지는 모두 동일한 원리, 즉 “회전 관성과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에 기반하여 출제된 선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핵심적인 요소는 “비례-반비례 관계**’였죠. 다들 깨달음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과학 지문에 등장하는 “공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 올해 6월 모의평가의 “거리 지수”를 함께 떠올린 사람이 있다면 반.할.거.야)

지문에 드러나 있듯이

- 각운동량 = (각속도) X (회전관성)입니다. 그리고 이때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 운동을 유지하므로 각운동량은 “보존”됩니다(각운동량 보존법칙).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지문에서 회전관성이 “질량 요소와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한다고 드러나 있는 반면, “각속도”에 관해서는 ‘회전관성이 커지면 각속도는 작아진다’는 논리 말고는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철저히 지문에 근거했을 때” 각운동량은 “회전관성”에 의해 영향을 받아 그 값이 정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자면 각운동량은 전적으로 “질량 요소와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에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은 또 이렇게 반박할지 모릅니다. “시험장에서 이런 생각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나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과학 지문에서 “공식”이 주어지는 경우, 그리고 그 공식이 단순히 사칙연산 정도의 수준을 드러내는 경우 이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출제자”에게도 얼마든지 이해 가능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출제자는 이를 활용하여 여러분에게 “흔돈”을 제시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지문에서 “공식”이 주어질 때에, 그리고 그것이 사칙연산이라면 출제자는 그것을 활용하여 여러분에게 흔돈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점을 미리 예측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간 기출문제에서 드러나 있는 공식이 활용되는 패턴들을 확인하고, 이를 “체화”한다면, 얼마든지 시험장에서도 출제자의 “장난”에 쉽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8번 문항을 잠깐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도 다들 이제는 눈치 채고 있듯이, 해당 지문은 철저하게 “회전 관성”에 근거하여 지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다 보니 출제자가 선지를 구성할 때에도 “회전 관성”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1) 출제자도 “각속도”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본인들이 접하게 된 자료에 그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혹은 2) “각속도”에 관한 내용이 원래 출제자가 접한 텍스트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를 제외하고 각운동량을 물으면 학생들이 더욱 혼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2)의 경우가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추측의 근거는 각운동량을 구하는 공식이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볼까요?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하고 글이 전개하게 되면 “각운동량”은 일정해야 하므로, 회전 관성이 커지면 당연히 각속도는 작아져야 하고, 회전 관성이 작아지면 당연히 각속도가 커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나?

예를 들어 어떤 숫자 x 의 값이 상수로서 “10”(각운동량)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x = a * b$ (a 와 b 는 원지 당연히 알지?!)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a, b 는 “정수”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a, b)의 가능한 경우의 수는 (1,10), (2,5), (5,2), (10,1)입니다. 그리고 정렬된 좌표의 값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 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b 는 작아지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되죠. 이는 위의 “각운동량” 관련 공식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쉽죠? 너만 쉬운가? No! 출제자도 이 정도는 쉽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장난”을 치고 싶어지겠죠.

부디, “출제자는 여러분보다 수학과, 과학도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길 바랍니다.

다루고 있는 제재가 “과학”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문의 문항이 어렵다는 편견을 버려주세요.

여러분보다 수학과, 과학도 못하는 출제자들도 지문으로 문제를 출제!하죠. 그럼 적어도 그걸 푸는 것은 조금 더 쉬운 일이 아닐까요? ^^